지역기반 '강소금융' 도약… 신남방서 '성장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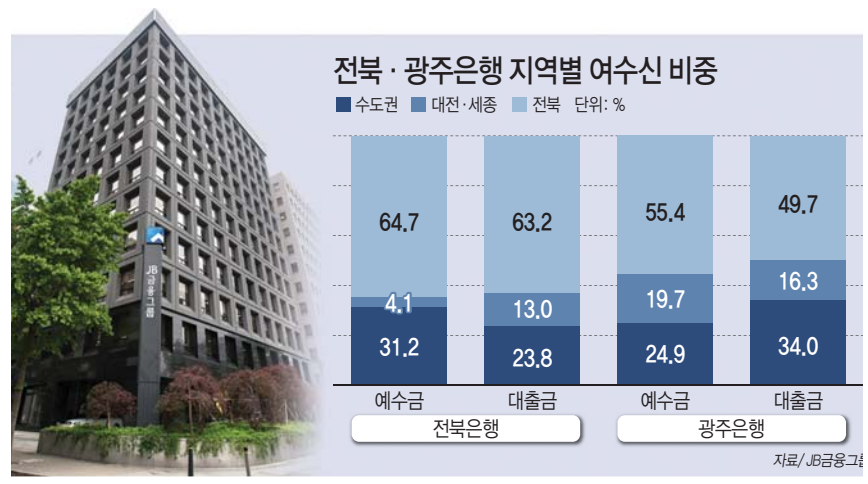
금융, 飛上 2020 전략

〈7〉 JB금융그룹

광주銀 해외송금, 전북銀 P2P제휴
지주-계열사 역할분담 '디지털화'

빅데이터·딥테크 핵심역량 구축
"연고지역 영업력 강화에 총력전"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JB금융그룹의 올해 목표는 내실위주 경영을 통한 '강소금융그룹' 도약이다. 골격을 키우기보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 자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 등 어려운 금융환경이 이어지자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 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설명이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태생부터가 다르게 시작해 규모 경쟁은 할 수 없지만 내실 경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도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

JB금융은 우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선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현재 금융 관련 제도와 법규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맞도록 지주사와 계열사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금융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해외송금 제휴업무를, 전북은행은 개인 간 거래(P2P) 제휴사업을 진행한다. 동시에 계열 은행 모두 내부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고도화, 자동화 로봇기능(RPA),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등 디지털 사업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디지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조직도 재편한다. JB금융은 지주사 디지털 담당 임직원을 그룹 내 각 은행으로 이동시키고 지난해 말에는 경영전략그룹 산하에 신규 디지털 총괄 책임자조직을 신설했다. 오픈뱅킹 시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인 만큼 빅데이터, 딥테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등 핵심역량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금융… '지역기반의 핵심경쟁력'

JB금융은 또 전북·광주은행의 연고지 영업을 강화한다. 매년 늘어나는 JB금융 순익의 대부분은 지방은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광주은행의 순이익은 1.2% 감소한 139억원이었지만 전북은행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957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여수신 비중을 보더라도 수도권, 대전·세종보다 연고지인 전북·광주가 50% 이상으로 높다. JB금융의 주 수익원이 연고지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수도권과 연고지역에서 똑같은 성장을 이루더라도 연고지에서 성장하는 것이 지방금융으로선 좀 더 가치가 높다고 본다"며 "규모 면에선 수도권에서 시장점유율 1% 성장하는 것이 전남·전북지역에서 9% 성장하는 것과 같지만 JB금융의 가치에 더 맞게 연고지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B금융은 전남지역에 4개의 광주은행 지점을, 전주지역에 3개의 전북은행 지점을 열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방은행이라는 정의는 지역적 한계성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 든든한 지역 기반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했다는 의미"라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연고지역 영업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종합금융그룹

JB금융은 올해를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의 원년으로 보고 확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JB금융은 신남방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캐피탈부터 증권사까지 인수해 비은행부문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JB금융은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지분 100%를 19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해 체결하고 운영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현재 JB금융의 계열사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상업은행(PPCB)을 운영하고 있고, JB우리캐피탈은 미얀마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프놈펜 상업은행의 순익은 지난 2016년 27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143억원으로 5.3배 증가한 수준이다.

김기홍 회장은 "금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만큼 해외로 수익원을 다각화는 것은 미래 수익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며 "동남아시장의 금융수요는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돼 소매금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銀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 혁신은행'

AI 등 신기술 무역금융 접목 성과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글로벌 파이낸스가 주관하는 '2020년 최우수 무역금융-공급망금융 시상식'에서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 혁신은행(Most Innovative Bank for Trade Finance)'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글로벌 최우수 무역금융-공급망금융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들은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북미, 유럽계 글로벌 선진 은행들이며, 국내 은행 가운데에는 신한은행 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상품 출시와 함께 블록체인이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무역금융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낸스 '2020년 최우수 무역금융-공급망금융 시상식'에서 손석호 유럽신한은행 법인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3억 스위스프랑 공모채권 발행

현대캐피탈이 스위스프랑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5일, 3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5년 만기 고정금리 공모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발행금리는 5년 스위스 미드 스왑금리(CHF Mid Swap)에 75베이시스 포인트(bp)를 더한 수준으로, 달러 조달 금리 대비 25bp 상당 저렴하게 조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통화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안정적인 통화로 고려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0년 국내 민간 금융사 최초로 스위스 채권시장에 데뷔해, 7차례에 걸쳐 총 CHF 16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현대카드는 이번 8번째 발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스위스 시장 내 정기 발행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한편, 2018년에 발행한 3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채권은 디 에셋으로부터 '2018 최우수 회사채상'을 수상했다.

이번 채권발행은 별도의 로드쇼 없이 진행됐다. 스위스 현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적인 IR 수행의 결과라는 게 현대캐피탈 측의 설명이다.

현대캐피탈은 연초 견조한 스위스 채권시장 분위기로 총 68개 투자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발행규모 대비 1.5배 초과수요를 달성하는 등 스위스 채권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美서 AI ETF 상장… 거래소에 태극기 휘날려

CEO 인터뷰

김형식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대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 3년 새 1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가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건물에는 태극기와 함께 해당 회사의 현수막이 걸렸다.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다.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이하 크래프트)의 김형식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16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달 중 성수동에 위치한 회사를 여의도로 옮긴 후 본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AI 기술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AI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스마트베타가 새로운 시장"

지난해 5월 크래프트는 뉴욕증권시장에 인공지능 기반 ETF 2종을 상장했다. 상장 당시에도 100%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되는 ETF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컸지만 연말 성과는 더욱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크래프트의 AI ETF인 QRFT와 AMOM이 각각 시가 대비 3.85%, 5.21%의 분배금을 지급한 것.

김 대표는 "해당 ETF는 S&P500 모멘텀 지수를 추종하지만 종목 구성은 액티브하게 운용된다"면서 "종목이 교체할 때마다 쌓이는 실현손익을 연말에 나누다보니 5%가 넘는 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크래프트는 '스마트베타 ETF'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기존 ETF 시장은 이미 해외에서 블랙록, 뱅가드가 독점하고 있을뿐더러 결국 수수료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스마트베타는 ETF에서 새로운 전략을 더해 알파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액티브 시장은 헤지펀드, 사모펀드(PEF)만 남았고, 패시브 시장은 블랙록, 뱅가드가 독점하고 있다. 액티브와 패시브 사이에 있는 스마트 베타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 상장한 멀티 팩터 ETF 중 우리의 성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스마트 베타 시장은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AI 자산관리 시장 만들 것"

AI ETF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증명한 크래프트는 향후 자산관리 시장으로 사업 보폭을 넓힌다. AI 자산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과 영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플랫폼 발전을 보면 뱅크샐러드, 토스도 결국 자산관리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 역시 AI 자산운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등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만큼 비용 줄이기도 중요한 과제다. AI는 일정 부분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김 대표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몇 백개의 기업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걸 담당할 운용역을 모두 뽑을 수 없다"면서 "AI는 회사 목표에 맞춘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도입하면 작은 인원으로도 많은 아웃소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